목포시의료원, 도립 전환 목소리 커진다

우수 의료 인력·장비 확보 등 절실
도의회 타당성 조사 실시 필요
경영전략본부장 체제 도입 여론
목포시, 과장급 격상 재파견 시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료원 전경.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의료원은 지난 2006년 '목포시의료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2015년에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등 전남 서남권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목포시와 의료원에 따르면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의료원은 지난 2007년 제8대 최태옥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급변했다. 최 원장은 의료인으로 신망이 두터운데다 리더십과 포용력까지 겸비해 노조와도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8대부터 내리 12대까지 5대째 원장을 맡고 있는 최 원장의 임기 만료가 4개월 뒤로 다가오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최근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시의회와 지역 언론 등 외풍을 막고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박 모 관리부장이 유고로 공석이 됐지만, 이 자리를 대신할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게 의료원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최 원장이 의료원을 떠나면 당장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더 큰 문제다. 의료원 수입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정형외과 과장 등 2~3명의 의사들이 의료원을 떠나 개인병원을 개업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목포시 의료원은 의사가 17명(정원 20명), 간호직렬 95명(109명) 직원 226명(정원 216명)이다. (2018년 경영공시 기준)

목포시와 규모가 유사한 남원시의료원의 경우 의사가 42명(31명), 간호직렬 113명(141명) 직원 295명(329명)으로, 차이가 크다.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극명하다. 남원시의료원은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의료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수 인력이 확보돼야 환자들이 많아지고 더불어 병원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우수 인력을 영입하려면 최소 월 1500만원선을 맞춰줘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엄두를 못낸다. 우수 인력 확보가 안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이처럼 원장 퇴임과 관리부장 부재에 우수인력 유출 등 3대 악재가 겹치면서 시 의료원이 또 다시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의회와 의료원 안팎에서 이번 기회에 목포시의료원을 도립으로 기능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원(기획복지위원회)은 "의료공급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 서남권 6개 시·군을 담당하는 거점병원인 만큼 전남도의회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도립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원 적정 운영인력, 적정 운영원가, 도립 장단점 비교, 운영주체별 공공성·목적달성·전문성 등 운영 효율성,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는 '목포시의료원 도립 전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서남권 6개 시·군을 담당하는 거점병원으로써 연관 있는 도의원만 15명이나 되고, 전경선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금이 최적기라는 분위기도 가세했다.

이와 관련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원(예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 안팎에서 남원시의료원은 관리부·간호부·진료부 외에 별도의 경영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시 의료원도 '경영전략 본부장 또는 실장'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영개념(마인드)을 도입하지 않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목포시 공무원(6급)이 파견됐으나 시의회 요구로 올해 초부터 중단된 공무원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원 노조에서는 만일 시가 다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면 관리부장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게 직급을 격상에 사무관(5급)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 중앙의료원 2018 운영평가에서 시 의료원은 병원별 특화서비스와 일반진료서비스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내 대기시간'이 점진 개선분야로, 입원환자는 '의사 진료서비스'가 중점 개선분야로 나타났다. 또 이사 8명 중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사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옛 청호중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융합 체험·교육 통합센터 구축
2021년까지 95억원 투입

기존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목포 용해지구로 이설된 옛 청호중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됐다.

목포 청호중 옛 부지와 건물에 오는 2021년까지 총 95억원을 투입해 교육문화 공간인 '전남형 창의융합 체험·교육 통합센터'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사실은 이혁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원(목포)이 지난 25일 전남도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폐교 중 도심에 남아있는 대형 폐교의 활용이 시급하다"며 전남교육청 산하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혁제 전남도 의원은 "도심에 남아있는 대형 폐교의 활용이 시급하다. 그대로 버려뒀을 때 범죄 장소·화재 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옛 목포 청호중 건물이 도심 폐교 활용의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로의 개발은 반대한다"며 활용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청호중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전남형 창의융합 체험·교육 통합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라면서 "청호중은 교육 시설로 리모델링해 이용할 것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센터 내 녹지공간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낭만항구서 '목포 9미 대첩' 즐겨요

목포항구축제 3~6일 개최
파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

9~10월 두 달간 진행되는 목포 가을 페스티벌의 3대 행사(세계마당페스티벌, 야행, 항구축제)인 목포항구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낭만항구 목포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 판!'을 주제로 열리는 올 항구축제의 3대 테마는 '신명나는 파시마당', '목포 9미 대첩', 갯가 풍어 길놀이 '천년의 사랑'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목포 9미(味) 대첩은 맛의 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고 항구축제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름부터 신선한 목포 9미 대첩은 ▲쇼 미 더 9미 '이것이 목포항' ▲쇼 미 더 9미 '이것이 목포 무침' ▲대동 먹거리 나눔 '1897 회덮밥' ▲단품요리 맛보기 '목포 밥상' ▲민어 빵엔 민어가 있을까?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목포 밥상과 민어가 있을까?'는 상설이다.

또 목포 9미 대첩과 관련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포 9미 스토리 전시관'이 운영된다. 이곳에 목포 9미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와 함께 모형이 전시돼 이해를 돕는다.

'목포항과 목포 무침'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음식점에서 출품한 바다의 맛이 가득한 국물 요리와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한 무침요리가 소개되고 직접 시식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물요리 16개소와 무침요리 16개소 등 32개 업소가 참여한다.

'목포 밥상'은 미슐랭 셰프가 참여해 단품요리 공모를 통해 개발된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코너다. 조리체험 메뉴는 '낙지 또띠아'이며 시식체험 메뉴는 6가지이고 매일 4회 운영된다.

'대동 먹거리 나눔 1897 회덮밥'은 큰잔치 후에 마을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먹는 우리나라 옛 풍습을 인용해 목포개항 1897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897명과 함께하는 음식 나눔 행사다.

목포항구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에선 맛의 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목포 9미 대첩'이 열린다. 어등터널 모습. 〈목포시 제공〉

이와 함께 '파시마당'에서는 7~80년대 다라이 판매를 재현한 '목포 할매 파시장터', 국악을 들으며 목포 9미를 맛 볼 수 있는 '소리가 있는 파시주막', 전통과 현대 어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낭만어구 놀이터' 등이 펼쳐져 중장년층에게는 옛 시절 추억을, 젊은 층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3000명 참여 성황리 마무리

목포시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안전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기르고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7~28일 실시한 안전체험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특히 이번 안전체험 교실은 기대와 달리 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몰려들면서 준비한 기념품이 동나 행사를 주관한 한국 어린이재단측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인기를 끈 배경에 대해 목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중요한데 새로 선보인 완강기 체험 등 예년에 비해 올해 알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